

노형욱 장관 첫 현장행보.. 테마형 청년주택 “아츠스테이” 찾아

- 25일 청년주택 방문하여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속 소통 의지 표명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5일(화)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(아츠스테이*)을 찾아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.

* 안암생활(안암동 청년주택)과 같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2번째 주택

○ 금일 방문 현장은 도심 내 관광호텔을 1인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·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테마형 청년주택으로,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공감하고, 소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.

□ 이날 노 장관은 “오늘 방문한 주택은 청년 1인가구의 취향과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도심 내에 조성한 맞춤형 주거공간”이라며, “다양한 공유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입주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주택”이라고 강조했다.

○ 특히, “기존의 상가·호텔 등 도심 내 위치가 좋은 건물을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발상을 전환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했다”며, “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여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“높은 월세와 집값,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대해 안타까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”면서,

○ “청년이 원하는 부분을 주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,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테마형 청년주택 운영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”을 강조했다.

2021. 5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참 고

아츠스टे이 주택 설명

전 경	위치도	주변 환경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영등포시장역 도보 9분 •타임스퀘어 도보 20분 •여의도공원 도보 20분 •한강성심병원 도보 3분

□ (개요) 도심내 유희 상가·숙박시설·고시원 등을 리모델링·매입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1인 청년주택으로 공급

* 이전 “칸 호텔(Khan Hotel, '15년 준공)”을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

○ 지하 3층~지상 17층(51호), 전용 21m² ~ 29m²(원룸)

< 층별 세부 용도 >

층 별	용 도	세부 구조 및 특징
3~17F	주거공간	study형(연구공간) 및 studio형(창작가 작업실)
1~2F	커뮤니티 공간	계단식 좌석, 공용라운지, 팝업스토어, 오픈갤러리
B1~2F	커뮤니티 공간	공유 주방·식당, 공유 세탁실 등

□ (입주자) 저소득 대학생 등(27호), 창업·예술인(23호), 장애인(1호) 선발

□ (임대조건) 보증금 100만원 + 월 33~47만원(시세 50% 이하) 수준

* 주변 원룸 시세 : 보증금 2천만원 + 월 60만원대

□ (특화운영) 예술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“안테나(사회적 기업)”가 운영을 담당하여, 예술 관련 워크숍·강연·작품전시 등 제공 예정

• 주택 내 자체화폐를 통해 주거생활과 공동체 활동 연계

* 예) 요가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입주자에 자체 화폐 제공(운영기관)

• 입주 예술가의 공동 작품활동 및 작품 전시·판매, 요가활동·런닝크루 등 자발적 모임(매일), 공유 주방 냉장고 비우기(매월)

□ (특이사항) 관광호텔(주거공간+별관)의 용적률이 주택용적률 초과

⇒ 적극적인 규제개선(공특법상 특례 부여)을 통해 용적률이 초과된 “별관”을 철거하지 않고 지역 예술인 등의 작업·전시 공간으로 활용 예정

□ (주요시설) 공유주방, 거주공간, 공유회의실, 코워킹 공간, 옥상 등

< 공유 주방 >



< 공유 식당 >



< 예술·창업가 공간 >



< 일반 청년 공간 >



< 공유 회의실 >



< 코워킹 공간 >



< 옥상 테라스 >



< 1층 라운지 >

